



이달의 인터뷰

정정우 전남도지회 지회장

한국오리협회 지회를 가다 전남도지회 정정우 지회장



정정우
전남도지회 지회장

‘상생’이 필요합니다.
‘나’ 보다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협회와 회원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한국오리협회의 숨은 주역들을 만나보는 시간, 한국오리협회 지회를 가다

제1부의 주인공은 국내 오리산업의 주산지인 전라남도에서 회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협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정정우전남도지회장이다. 정정우지회장은 전남 보성군에서 족림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족림농장은 보성군 오리농장 제1호다. 그가 오리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보성군에는 오리농장이 없었다. 건너 마을 장흥에서 자문을 얻어 직접 니플을 설치해가며 지금의 족림농장을 지었다. 이후 2006년 협회활동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남도지회를 이끌어왔다. 생산자의 입장과 지도자의 입장에서 본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이라고 말한다. 내년 2월 임기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는 정정우전남도지회장을 만나보았다.

한국오리협회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전남도지회장 정정우입니다. 먼저, 오리산업 발전을 위해 오늘도 분투하고 계신 사육·부화·유통·계열업체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사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오리산업은 현재 지난 연말 AI여파에 이어 세계 및 국내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협회는 ‘내’가 아닌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축산 관련 협회 중 사육, 부화, 유통·계열 모든 분과가 하나로 뭉쳐 있는 단체는 유일하게 우리 오리뿐입니다. 그 점을 강점으로 활용하여 모든 분과가 서로 상생하여 보듬어 안고 갈 때 우리 오리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해 겨울, 우리를 위협하던 조류인플루엔자의 악몽이 채 잊히기도 전에 철새 이동시기가 다가와 다시 한번 마음의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AI 철’이 돌아온 만큼 축산농가들은 자가방역이 최우선이라는 의식을 갖고,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합니다.



농업박람회 개막 전 전남도지회 부스 전경



오리고기 시식 및 원가판매 진행

전남도지회는...

전남도지회는 현재 영암군 영암읍 역리에 위치해있으며 나주, 영암을 시작하여 땅끝마을 해남까지 17개 지부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지회 사무실 임직원으로는 저(회장)를 포함하여 마광하총무, 이선희간사 이렇게 3명이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전남도 지회가 오리협회 지회결성의 시발지인 만큼 지회로서의 책임역할을 솔선수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산지인 전라남도에서부터 소비촉진이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회장 역임 후, 3년 전부터 꾸준히 축산박람회에 참가하여 오리고기를 시식, 원가 판매하여 우리나라 산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열린 '2011 농업박람회'에서도 마광하 총무를 비롯하여 이선희간사, 나아가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평균 하루 600개의 물량을 판매하였고, 이번 박람회를 참여하면서 우리 오리고기의 무궁무진한 발전성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까이에서 늘 원동력이 되어주는 마광하총무와 이선희간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이며, 전남의 17개 지부 및 회원분들, 그리고 오리협회 모

든 회원분들과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지면을 통해 전하고자합니다.

전남도 내 오리산업의 현황

전라남도의 오리산업은 작년 집계 기준 6,294천수로 전국의 4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사육규모 1위인 축종으로 전라남도는 오리산업의 주산지라 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축종으로 오리 생산액은 '06년 6,480억 원에서 '10년 13,059억 원으로, 오리 소비량은 1인당 '09년 2.11kg에서 '10년 2.78kg으로 성장한 만큼 전라남도의 오리사육두수 또한 '06년 449만수에서 '10년 629만수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종오리농장 40호, 부화장 24개소, 오리도축장 4개소 등이 전남도에 위치해있습니다. 이렇게 오리산업이 전남도에 주요한 축종인 만큼 문제점도 봉착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장식 밀집 사육으로 자칫 깔짚 등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환경불량으로 질병예방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AI가 발생하면 그 여파 또한 도미노식으로 빠르게 무너질



이달의 인터뷰

정정우 전남도지회 지회장



전남기자체육대회 오리고기 시식회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해 연말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당시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 또한 전라남도였습니다. 매몰한 오리 사육두수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피해가 막심하였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은 전남도의 오리산업이 국내 오리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여파가 크다는 것을 항상 숙지하여 농가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회장이 되기까지

제가 협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6년 전, 강화섭씨가 전남도 지회장으로 활동을 할 당시였습니다. 협회 활동에 참여하다가 2009년 선거가 있었죠. 그때 당시 저는 지회장이라는 자리는 누군가는 채워야 할 자리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현장 체험으로 생산자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육분과에서 그 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남도지회장 선거에 나가게 되었고 투표를 통해 전남도지회장이 되었습니다. 지회장을 역임하고 보니 전국 지회들이 다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후 각 지회 회원들 간 결속력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각 군 지부들을 직접 방문하여 지부결성을 권고하며 밤낮없이 돌아다닌 기억이 납니다. 그 덕에 당시 정부의 가설건축물 군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실제 가설건축물로 많이 바뀌는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다. 열성적인 협회 지회 활동에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장은 아내에게 일임하는 날이 많았지만, 그렇게 발품을 팔고 노력한 끝에 현재 전남도지회는 예년보다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회원들 간의 결속력이 강화 된 것 같아서 지회장으로서 보람이 있습니다.

임기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성과

질문을 듣는 순간이 일이 먼저 떠오르네요. 아마, 가장 기억에 남나봅니다. 2008년, AI로 인해 오리산업이 엄청 불황이었죠. 조류인플루엔자로 정성으로 기르던 가축매물은 말할 것도 없이 가슴 아픈 일이었고, 각계 방송과 언론에서는 수시로 오리를 매몰하는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내어 국민들의 소비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오리식당들은 줄지어 문을 닫았고...(침묵). 그 당시 이 불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고문님들과 함께 전남에 내로라하는 언론사를 찾아갔습니다. 전남일보, 광주일보, 무등일보 등 4개 대표 신문사를 찾아가서 보도국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러다보니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실정을 보도국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 계기로 기자협회 총무님을 만나게 되어 언론과 협조체계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관련보도가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TV화면구성과 자세한 설명을 내보내 주기를 부탁하였고, 100°C 이상 가열한 오리고기는 건강에 지장이 없다는 문구 등을 추가 전달하여 소비자들이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보도국에 전화를 하면 바로 정정해주는 등 즉각적인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자체육대회 오리고기시식회를 개최하여 오리고기 소비홍보를 하는 등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포부, 책임 후 앞으로의 계획

내년 2월이면 지회장임기가 끝나죠. 지나온 3년을 돌아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한 덕에 저 나름대로 뿌듯한 점도 많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의 일을 마무리 잘하여 다음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잘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지회장이 아니라도 협회 활동에 열정을 잃으면 안 되겠죠. 역대 지회장인 만큼 전남도지회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협회에서 주관하는 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할 생각입니다.

협회/회원에 바란다

‘하나’를 말하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협회는 아직까지 편협적인 모습이 존재합니다. 오리산업이 발전하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뭉쳐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먼저, 지회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군 지부, 각 도 지회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협회는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각 분과별 모임이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정례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리산업 종사자들끼리 형제애를 쌓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의무자조금 시행인데요,** 자조금의 성과는 한우나 양돈 등 이웃축종을 보더라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의무자조금이 시행



전남도지회 마평하 총무

된다면 무임승차하는 종사자 없이 오리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회원들의 회비

와 각 임원 및 분과별 임의자조금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조금을 내면서 생기는 의무감



전남도지회 이선희 간사

과 책임감은 오리산업과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관심은 곧 오리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부심입니다.** 오리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그것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들이 협회에서 주관하는 회의, 교육에도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생각의 틀을 깨기도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커지기 위해서는 던져 놓는 과감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보듬어 안기도 하는 과정이, 결국은 종사자들끼리의 더 큰 소통으로 발돋움 할 것이며, 오리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원들은 회비를 내며 자기권리를 주장하고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는 그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정책을 펼쳐나가고, 우리가 ‘하나’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제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 오리산업은 훨씬 더 정진하리라 믿습니다.

